

『공정거래의 날』 선포식 개최



라 시장이 얼마나 우수한 경쟁시스템을 갖추고 있는가에 달려 있다고 밝히며, 정부의 강력한 법집행과 더불어 기업 스스로 공정거래규범을 준수하고 민간 자율적으로 경쟁문화를 확산시켜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한국공정거래협회(회장 김 용)와 한국중견기업연합회(회장 이상운)는 지난 4월 1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이한동 국무총리와 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질서경제학회,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 등 관계자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정거래의 날' 선포식을 가졌다.

한편, 자율준수 모범기업 사례발표에서 한국질서경제학회 백영훈 회장은 『21세기, 국가경쟁력과 공정거래질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국가 경제정책의 핵심을 금리정책과 공정거래 정책의 두 가지 틀 위에서 짜여지고 있으며 국무총리 산하의 공정거래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승격시키고 독립적인 행정부처로서 「공정거래원」으로 개편되어야 하며, 불공정한 경제행위에 대한 사회적 고발의식을 확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공정거래법 시행일인 4월 1일을 민간자율에 의한 '공정거래의 날'로 정하고, 공정거래정책에 대한 국민의식을 높이는 한편 기업들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확립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또한 GE사의 『정직과 신뢰성 정책-공정거래법 준수』에 관한 사례발표에서 강내리 변호사는 경쟁에 영향을 주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법률고문에게

이날 행사에서 이한동 국무총리는 한나라의 경쟁력은 자국 기업들의 효율성과 건전성에 의해 결정되며, 이는 결국 그나

문의하여야 하며, 경쟁업체와 가격, 판매 조건 등 경쟁 관련 사항을 결정하는 어떠한 합의도 절대로 제안하거나 체결하여서는 안 되는 것 등 현재 GE사가 시행하고 있는 기본지침을 소개하였으며, (주)KT의 이영남 국장은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용 및 효과』에서 자율준수편람, 공정경쟁 교육, 감독시스템, 제재 등의 추진과정을 소개하며,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실시후 경품행사, 광고 등 사전검

증을 필수화함으로써 위법·부당행위 발생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제거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동 행사에서 공정한 경쟁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로 백영훈 질서경제학회 회장이 국민훈장 모란장을, 이상운 중견련 회장이 동백장을 받는 등 모두 7명이 국민훈장 및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게 시 관

본 협회, 공정거래법 자율준수편람(매뉴얼) 열람 실시

본 협회에서는 회원사의 공정거래법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보급을 유도하기 위해 미국, 일본 및 우리 나라 주요 기업의 준수편람(매뉴얼)을 열람하고 있습니다.

열람할 수 있는 공정거래법 자율준수편람으로 미국 GE의 독점금지법 자율준수에 관한 가이드, 일본 NEC의 독점금지법 자율준수편람, 미국 변호사협회의 독점금지법 자율준수 매뉴얼(Allied Signal Inc, Amoco, The BFGoodrich, Chevron, Columbia/Health Care, The Dow Chemical, General Electric, General Motors, Hogan & Hortson, IBM, ITT, Mobil, Owens-Illinois, Pfizer, The Quaker Oats, Rohm and Haas, Scientific-Atlanta Inc, TRINOVA, United Technologies, Dupont 등), 그리고 우리 나라 삼성전자, LG전자, 한국통신, 포항종합제철, 동양제철화학, 롯데쇼핑, 현대백화점, 삼성화재해상보험, 동부화재해상보험, 현대화재해상보험, LG화재해상보험, LG가스, 롯데제과 등의 공정거래법 자율준수편람과 LG그룹의 공정거래법 업무 매뉴얼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회원사에서 열람을 희망하는 경우 필요한 편의를 제공코자 하오니, 회원사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용 바랍니다.